

## 젊은 연구 인재 육성

꿈을 이룬 이동하 군: 서울독일학교 재학 중인 17살 고등학교 2학년인 그는 머크의 지원으로 독일 벤샤임에 있는 Zentrum für Chemie – ZFC(화학 센터)가 주최하는 21세기 인벤터 랩(Inventor's Lab)에 참여했다.

2017년 1월 과학에 재능이 있는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전기차와 연료 전지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센터에 모였다. 이동하 군은 독일 혜센주와 DSSI(서울독일학교)에서 지원한 200명의 쟁쟁한 지원자들을 제치고 선발됐다. ZFC와 독일 학교간의 협력은 안드레아스 힐스보스 DSSI 교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는데, 그는 “저는 2000년 평생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센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독일 바트 나우하임에서 화학과 생물학을 가르치던 저는 우리 학교의 어드밴스 코스에 있는 학생 한 명을 2013년 처음으로 인벤터 랩 환경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후 저는 해외로 파견돼 2013년부터 DSSI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기존의 관계를 통해 화학 센터와 논의했고 우리 학교는 결국 이 곳과 업무 협력을 맺은 유일한 외국 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 머크와 직접 연락을 하게 된 것은 2014년 열린 DSSI Career Day 때였습니다.”

이동하 군은 독일 인벤터 랩에 참여하는 학생 중 세 번째 이공계 학교 출신 학생으로, 다른 15명의 연구 인재들과 함께 뤼셀스하임에 있는 라인 마인대학에서 과학자와 기업체 연구진과 교류하며 솔루션을 찾는 연구에 몰두했다.

미하엘 그룬트 한국 머크 대표는 “청소년들이 열의에 가득 차 있고 진지해서 정말 기쁩니다. 인벤터 랩과 같은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해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아가 머크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크는 이런 이유에서 ZFC 행사를 수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랩에서: 이동하 군(맨앞)이 동료 참가자들과 연료 전지차를 놓고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 이동하 군은 인벤터 랩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는 칩 한 봉지, 구미 베어, 종이 같은 일상에서 쓰는 것들로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런 재료를 부품 삼아 차를 만드는 일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든 차가 수소로 달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는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 이동하 군 인터뷰

기술과 과학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데 비결은 무엇인가요?

미디어를 통해 신기술이나 혁신 기술을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우주여행, 미래기술, 인공지능 분야가 재미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취미가 있나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고 탁구와 하이킹을 즐겨 합니다. 동영상이나 만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독일에서 공학을 공부해 천문학이나 우주 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